



더 많은 리포트 보기

2023년 9월 19일

디스플레이 / 가전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kbfg.com

연구원 유우형

02-6114-2940 Woohyung.yoo@kbfg.com

연구원 박주영

02-6114-2920 juyoung.park@kbfg.com

연구원 이경아

02-6114-2111 kyunga.lee@kbfg.com

IT

아이폰15 Pro Max 수요, 7년 만에 최고치

아이폰15 프로 맥스 (Pro Max), 7년 만의 가장 강력한 수요

— 9월 19일 다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된 애플의 아이폰15 프로 맥스 (Pro Max) 수요가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에서 지난해 아이폰14 프로 맥스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최상위 모델인 아이폰15 프로 맥스의 대기 시간 (주문 후 수령까지)은 평균 6주 수준으로 2016년 아이폰7 이후 가장 긴 것으로 보여 7년 만에 강력한 수요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Pro Max 모델 출하 비중 40% 역대 최고 수준

— 현재 아이폰15 수요강도는 6.7" 프로 맥스 (Pro Max) > 6.1" 프로 (Pro) > 6.1" 일반 > 6.7" 일반 플러스 (Plus) 모델 순으로 보인다. 최상위 모델인 프로 (Pro) 시리즈 비중은 아이폰15 전체 생산량의 66%를 차지하고, 최상위 모델인 프로맥스 (Pro Max) 비중도 40%로 예상되어 고급 모델 비중은 아이폰15에서 역대급이 될 전망이다.

아이폰15 수요, 우려 대비 양호할 가능성 높을 전망

— 아이폰15 출하량은 전년대비 +7% 증가한 8,000만대로 예상된다. 이는 ① 2019년부터 신규 구매를 연기한 아이폰 사용자들의 누적된 대기 수요가 4년간 3억대에 달하고, ② 중국 화웨이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뚜렷한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폰15 수요는 우려 대비 양호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5 프로 맥스 최대 수혜주: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 애플의 고급화 전략 강화로 아이폰15에서 프로 (Pro) 시리즈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생산량의 66%, 최상위 모델인 프로맥스 (Pro Max) 비중도 40%로 역대급이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15 평균판매단가 (ASP)는 전작대비 +13% 상승이 예상되어 실적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Pro Max 모델에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사들도 4분기부터 뚜렷한 실적개선이 예상된다. 특히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는 아이폰15 프로 맥스 (Pro Max) 핵심 부품인 카메라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공급 점유율 1위 (LG이노텍 70%, LG디스플레이 62%)를 기록하고 있어 4분기 실적 개선의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자 고지 사항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이노텍]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자료 공표일 현재 [LG디스플레이]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의 발행자 및 유동성공급자입니다.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KB증권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KB증권이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여하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KB증권에 있으므로 KB증권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KB증권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